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연출 특성에 관한 연구

Characteristics and Styles of Wearing Scarves in the Contemporary Fashion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김 선 영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 Young Kim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의 연출유형과 특성

- I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styles of wearing scarves in the contemporary fashion. Scarf-wearing styles found in the contemporary fashion are as follows: 1) Scarves are used as gorgeous hair accessories which are tied around the head like a headband, turban. 2) The second style is to wear scarves around the neck, which involves a variety of ideas. 3) Shawl-like scarves add elegance and femininity to any outfit when they are draped over the shoulders. 4) Scarves are also worn instead of or in addition to a belt with a dress, skirt, pants. 5) The style is to tie a scarf in knots at the back of the neck and the waist as it is shaped or in a diagonally half-folded shape. 6) You can tie a scarf to your hat or handbag or connect a long scarf to one part of your body.

주제어(Key Words) : 스카프(scarf), 패션성(fashion), 고정관념의 탈피(break stereotypes)

I. 서론

오늘날 현대 패션은 의상의 부분적인 디테일이나 소품으로 인해 전체의상의 이미지를 결정짓기도 하고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토털 패션으로서의 이미지 전달이 주를 이루기도 하면서 패션의 스타일을 완성하고 있다. 즉 의상 자체뿐만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 부가적인 요소들에 의한 토털 코디네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의복의 형태가 단순화됨과 동시에 액세서리에 의한 분위기 연출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다양한 패션액세서리 중 스카프는 어깨에 걸치거나 목에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등 보온과 장식용을 위해 사용하며 어느 시대에도 유행과 관계없이 애용되는 중요한 소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스카프는 사용방법은 물론 소재, 크기 등이 다양하여 다루기에 따라 풍부한 스타일링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변형과 개성표출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스카프에 대한 선행연구는(김경주, 2002; 김세원, 2000; 김혜진, 2008; 박순천, 김은실, 2005; 윤다래, 2004; 정희경, 김정혜, 2002; 차민정, 2003) 스카프의 조형미를 응용한 디자인 연구나 스카프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의 연출경향이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의 연출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개성적인 패션연출에 응용하고, 스카프의 장식적이고 다양한 조형미를 패션디자인에 응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스카프의 개념과 변천 및 종류 등을 고찰하였고, 스카프의 연출유형 및 특성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Gap, Vogue, Mode & Mode, Fashion news 등 국내외 패션잡지 및 컬렉션 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두꺼운 모직물이나 니트 조직의 머물러는 제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스카프의 개념과 변천

스카프(Scarf)에 대한 사전적 정의(패션큰사전위원회, 1999, p. 345)는 첫째, 장식적 또는 실용적인 액세서리의 하나로 보온이나 장식을 위해 어깨나 목 또는 머리 위에 착용하는 것으로, 형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등으로 다양하며, 소재도 실크, 면, 울, 편물, 코바늘뜨기 등 다양한 조직을 갖는다. 둘째, 장식적인 띠로서 어깨에서 양 허리 끝반부까지 볼드릭(baldric)처럼 비스듬하게 걸쳐 착용하는 것도

있다. 셋째, 셔츠의 앞부분에 착용하는 커다란 넥타이 형태로 장식 핀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도 있는데, 1830년대 남성들에 의해 애용된 착용방법이다. 넷째, 19세기 후반에 셔츠에 착용한 남성용스카프는 후면은 폭이 좁고 끝부분은 폭이 넓게 늘어진 것으로 현재의 넥타이로 변천하였다고 되어 있다.

스카프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Escarpe(장식 띠 또는 벨 뺑)'와 'Escreppe(순례자의 짐 보따리 또는 지갑)'에서 파생된 것으로(김경주, 2002), 그 기원은 북방민족의 방한용으로 목 주위를 덮거나 감는 목적으로 사용한 천이라 생각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사용상의 의미도 변화되어 왔다. 패션의 분위기 연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스카프는 수세기 전부터 실용성과 함께 장식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패션아이템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보통 얇은 천을 이용하지만 두꺼운 천, 편물, 모피 등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어 지기도 한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에 나타난 스카프는 실을 꼬아 두껍고 검은 털실로 만들어진 타래를 나선형으로 엮어 술 장식과 함께 끝처리한 것이 남아 있는데(Francois, 1987, p. 28), 고대 수메르나 바빌로니아 복식에서도 스카프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초기 수메르 여자들의 술은 왼쪽에서부터 드리워져 앞을 가로질러 오른쪽 팔 밑을 지나고 등을 지나 왼쪽 팔을 덮고 오른쪽팔을 자유롭게 드리내도록 착용되었으며, 바빌로니아의 기본 복식 중 하나인 술은 단에 수를 놓거나 술을 단 것들이 있는데 양 어깨에 걸치거나 왼쪽 어깨에 걸치고 왼쪽 팔에 늘어뜨려 입었다. 특히 아시리아의 복식은 튜닉과 술을 기본으로 하는데 술 장식이나 술 달린 술은 아시리아의 공식적 의상의 징표가 되었고 스카프의 크기, 장식정도, 술의 길이, 둘러치는 부분 등은 엄격하게 규제되었으며 착용자의 계급을 나타냈다(정홍숙, 1997, pp. 33-36).

고대 그리스 시대에 걸쳐진 스카프는 'mitra'라 불렸으며 직사각형의 형태를 어깨에 두르고 피블라로 각 어깨를 고정시켰으며 허리부분에 벨트로 한번 또는 두 번 매었다. 남성 복식에 나타난 스카프는 폭이 좁은 소매가 있는 튜닉 위에 오른쪽 어깨를 덮어 감싸는 형태였고, 여성복식에서는 길고 짧은 소매가 달린 튜닉과 긴 스카프를 대각선으로 교차시켜 어깨에 덮고 끝부분은 왼쪽 팔위에 늘어뜨렸다. 로마시대 역시 반원형이나 타원형의 토가를 몸에 둘러 착용하였는데, 이 위에 주름진 스카프를 어깨에서 크고 넓은 형태로 팔위에 걸쳐 찢고 황제나 상류계급사람들은 스카프를 둘러 허리에 매는 것이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정희경, 김정혜, 2002). 이와 같이 고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리넨으로 짠 직사각형의 옷감을 허리에 둘러 그 끝을 허리에 끼워 넣거나 좁고 긴 천을 두 다리사이로 꺼내 허리에서 고정시키는 형태가 있었으며, 머리를 감싸 어깨에 두르는 형태, 술 장식

〈표 1〉 스카프의 종류

종류	특징
네커치프 (Neckerchief)	무늬가 없는 옷감이나 무늬가 정방형의 수건으로 장식적인 목도리로서 쓰이며, 흔히 실크나 코튼을 주 소재로 함.
도파타 (Dopatta)	커다란 장방형 스카프 모양의 천으로서 인도의 힌두교나 이슬람교도의 남녀가 솔이나 베일로 사용하며, 재료는 금실이나 은실을 짜 넣은 모슬린이나 견직물이 주종을 이룸.
도파티 (Dopatti)	인도 북서부 팬자브 지방의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의 얇은 스카프를 말하며, 주로 여성이 사용.
맥시스카프 (Maxi scarf)	스카프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긴 스카프를 말함.
해킹 (Hacking)	머플러의 일종으로 니트나 직물로 만들어진 180cm정도의 긴 것.
맨틸라 (Mantilla)	스페인 여성이 차림 하는 독특하고 큰 스카프 모양의 것을 말하는데, 자라 껍질이나 상아로 된 커다란 빗을 머리에 꽂고 그 위에 쓰는 것을 지칭함.
머플러 (Muffler)	스카프나 스톨과 같이 목에 두르는 것으로 두껍고 방한용으로 된 것을 특히 머플러라 한다. 대략 너비가 12인치로 19세기부터 현대까지 착용하는 스카프의 일종이며, 보통 모, 비단, 또는 레이온으로 편직하거나 격자무늬나 무지로 직조된 소재를 사용함.
샬 제앙 (Chale geant)	커다란 솔, 디오르사의 1977년 춘하 컬렉션의 대표적 액세서리의 하나임.
세일러 스카프 (Sailor scarf)	세일러 칼라의 아래로 지나게 하여 가슴부분에서 묶는 삼각형의 천.
솔 (Shawl)	천이나 모사제품으로 된 어깨덮개를 말한다. 정방형, 삼각형, 장방형 등 형태가 다양하다. 동양에서는 주로 방한, 방서 등 기능을 위한 민족의상으로 사용되어 왔고, 서양에 전해지고부터는 주로 액세서리로 발전됨.
스융프 (Sweep)	뉴욕디자인어 미야 가우디 여사의 발상에 의한 어깨에 걸치는 머플러의 명칭이다. 스융프는 ‘청소한다. 먼지를 털다, 쓸어낸다.’는 뜻으로 이를 목이나 어깨에 걸치고 상쾌하게 거리를 걷는 여성의 모습에서 이름 붙여짐.
스카프 벨트 (Scarf belt)	스카프를 벨트로 응용한 것으로 새시벨트의 일종.
스톨 (Stole)	여성용 어깨 덮개의 일종으로 길고 폭이 비교적 좁은 것을 말하며, 양끝에 술을 달기도하고 모피의 경우에는 안쪽에 포켓을 달기도 함.
스페인쉬 솔 (Spanish shawl)	스페인 특유의 목도리로 네 귀에 술을 단 사각형인데 삼각형으로 접어 착용함.
초커 (Choker)	목을 조이는 것이라는 뜻에서 전화되어 목에 알맞게 감기는 목장식을 말하며, 밴드 장식이나 짧은 목걸이, 보석으로 장식한 짧은 목도리 등을 지칭.
행커치프 (Handker Chief)	손 다향용 또는 정방형 천을 말하며, 현재는 거의 실용품으로 사용.
힙 랩 스카프 (Hip Wrap scarf)	힙에 커다란 스카프를 감아서 앞이나 옆에서 묶음.

이 달린 솔을 왼쪽 어깨에서 앞가슴을 지나 다시 왼쪽 어깨를 감싸는 형태가 있었다(임순, 김효숙, 강인애, 2001, p. 9). 이는 오늘날 커다란 스카프를 몸에 두르거나 허리에 감아 늘여뜨리는 스카프 연출법의 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중세시대에는 비잔틴 복식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6C경 사라센 족들이 동방에서 서유럽으로 침입하여 사라센 복식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자 복식에 있어 튜닉 위에 대형의 스카프로 머리에서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고 한다(이정옥, 최영주, 최경주, 1987, pp. 87-99). 12세기 경 로마네스크 복식에 나타난 스카프는 머리 위에 견이나 리넨으로 된 사각 또는 원형의 얇은 직물로 덮어쓰고 어깨위로 늘어뜨렸다(정희경, 김정혜, 2002). 이와 같이 중세시대에 있어서는 사다리꼴, 반원 모양의 천으로 왼쪽 어깨를 감싸서 오른쪽 어깨에서 편으

로 고정시키는 형태, 20cm폭 정도의 좁은 천을 몸에 감싸거나 목에 거는 형태, 칼라모양으로 어깨를 감싸는 형태 등이 있었다. 또한 커다란 직사각형, 원형, 반원형의 천을 어깨에 두르는 망토 형태 등이 있었으며, 고딕 건축양식을 연상시키는 뾰족한 첨탑형의 모자 위에 베일을 늘어뜨리는 형태도 있었다(임순 외, 2001, p. 10).

근세 복식에 있어서는 머리 윗부분은 각지게 하고 뺨을 따라 흘러내리게 한 게이블(Gable)헤드 드레스가 유행하였고, 17세기 경 실크나 레이스 등의 부드러운 천을 목에 감아 앞에서 리본모양으로 묶거나 늘어뜨리는 크라바트(Cravat) 형태가 있었으며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 넥타이의 전신이 되었으며 스카프의 시조라 할 수 있다. 이후 나폴레옹 3세 시대에는 어깨에 두르는 솔이 유행하였는데, 이 솔은 길고 좁은

것 보다 사각형의 큰 것이 유행하여 가볍고 따뜻한 캐시미어 슐과 함께 광택이 나고 부드러운 크레이프에 테슬 장식을 달고 자수를 놓은 것이 애용되었다(정홍숙, 1997, p. 323).

19세기 초 여자복식은 허리선이 높은 드레스로 넓이보다는 길이가 길어진 스카프가 쓰였으며, 깃털이나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스완스다운 팔라티움(Swansdown Palatime) 스카프로 우아하게 보이는 장신구로 유행되었고 크기와 소재가 다양해지면서 여자복식에서 계속 이어졌다(정희경, 김정혜, 2002). 실크가 스카프의 소재로 널리 일반화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알려져 있으며, 크리놀린 시대에 캐시미어, 견, 레이스의 스카프가 유행되었다(김경주, 2002). 현재와 같은 스카프는 19세기에 이르러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주로 여성용의 액세서리로 네크라인을 장식하거나 머리를 덮기도 하고 벨트 대신 허리에 사용하는 장식물로 애용되었다. 또한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공예디자인 운동으로 인해 스카프 디자인이 독자적인 디자인 영역으로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1920년대 장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액세서리 디자인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전쟁이후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함께 여성 패션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의복은 단순하고 간소화 되었다. 따라서 액세서리는 더욱 화려해지고 다양해져서 자연스럽게 스카프의 역할도 장식적인 역할로 더욱 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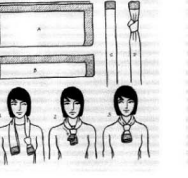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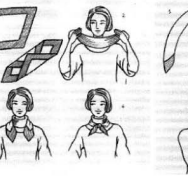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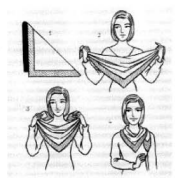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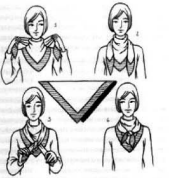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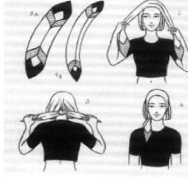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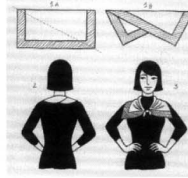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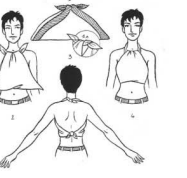
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김경주, 2002).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큰 정방형 실크 스카프가 유행하기도 하였는데, 군인들이 집에 보낸 선물로서 인기 있었던 이 스카프는 전쟁 시 사기를 북돋아주는 기념적인 스카프는 물론 '디자이너 라벨'이 부착된 스카프를 포함하였다. 1950년대는 스카프 사용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이브닝드레스에 두르는 슀 형태, 블라우스나 커프스와 같은 친으로 스카프를 만들어 목에 리본으로 묶어 트리밍 효과를 주는 형태가 있었고, 1960~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히피문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에스닉풍의 의상과 장식이 유행함에 따라 스카프로 터번을 만들어 쓰거나 머리를 감아 뒤에서 묶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임순 외, 2001, pp. 16-18). 이후 1980년대부터 의상과 함께 다양한 액세서리를 함께 연출시키는 토털룩이 등장함으로써 다양하고 자유로운 스카프의 연출법 및 유형이 나타났고, 스카프가 의복을 보조하는 장식적 역할이 아닌 독보적인 패션의 아이템으로서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2. 스카프의 종류

스카프의 종류는 섬유질, 색깔, 크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정하게 정해진 크기나 형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길이는 맥시, 중간, 짧은 것으로 나누고, 폭은

〈표 2〉 다양한 스카프 연출

구분	연출방법				
목 장식	 <p>〈타이형태로 연출〉</p>	 <p>〈띠 형태로 접어 묶는 연출〉</p>	 <p>〈스카프 링을 활용한 연출〉</p>		
	 <p>〈삼각형으로 접어 묶는 연출〉</p>	 <p>〈띠 형태로 접어 두르거나 꼬아서 연출〉</p>			
머리, 어깨, 가슴, 장식 및 기타	 <p>〈헤어밴드로 활용〉</p>	 <p>〈어깨장식으로 연출〉</p>	 <p>〈담으로 활용〉</p>	 <p>〈액세서리로 활용〉</p>	

밴드형, 장방형, 삼각형 등으로 나누며, 직물의 종류는 얇은 것, 두꺼운 것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소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의 <표 1>은 다양한 스카프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라사라교육개발원, 1991, pp. 310-330; 오희선, 2000, p. 261; 패션큰사전위원회, 1999, pp. 171-326). 또한 스카프를 묶는 방법은 크게 기본형 묶기, 아코디언형 묶기, 돌려 묶기, 한쪽 리본 묶기 등을 나눌 수 있으나 이 외에도 머리, 목, 어깨, 가슴, 허리 등 인체부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

고 있다. 세계유명 브랜드 중 에르메스(Hermes)는 ‘Carre’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스카프 외에도 소형과 중형스카프, 주름스카프 등 다양한 형태의 스카프를 선보이고 있는데, 에르메스가 책자를 통해 소개하는 스카프의 연출법은 무려 3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독특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기도 한다. <표 2>는 다양한 스카프의 연출 중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Heremes, 2001-2006).

<표 3> 스카프 연출유형별 빈도

구분	머리장식	목장식	어깨장식	가슴장식	허리장식	기타	합계
빈도(%)	92(18.5)	292(58.9)	36(7.3)	26(5.2)	16(3.2)	34(6.9)	496(100)



<그림 1>
Cacharel,
2003S/S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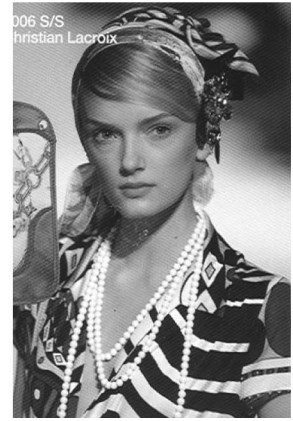
<그림 2>
Hermes,
2008S/S
(www.style.com)



<그림 3>
D&G,
2008F/W
(www.style.com)



<그림 4>
Eley Kishimoto,
2008F/W
(www.style.com)



<그림 5>
Christian Lacroix,
2006S/S
(Gap Press, v.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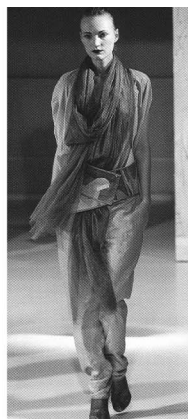
<그림 6>
Emporio Armani,
2008S/S
(www.style.com)



<그림 7>
Hanae Mori,
2002S/S
(www.style.com)



<그림 8>
Celine,
2003S/S
(www.style.com)



<그림 9>
Gustavo Lins,
2008F/W
(www.style.com)



<그림 10>
Dolce&Gabbana,
2008F/W
(www.style.com)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의 연출유형과 특성

스카프는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접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같은 형태의 스카프라도 매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머리나 목, 어깨, 허리, 가슴 등 신체부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장식하여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스카프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문양이라 할 수 있는데 스카프의 문양은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미적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스카프 디자인은 펼쳤을 때보다 착용했을 때 즉 접었을 때의 형태를 고려하여야하며, 무늬변화가 많을수록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스카프의 문양으로는 줄무늬나 체크, 물방울, 꽃, 나뭇잎, 페이즐리 문양 등을 기본으로 동물, 회화, 추상, 문자, 심벌이나 마크, 아라베스크 문양 등도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문양과 혼합된 복합문양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스카프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의상과 함께 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상에 포인트의 역할을 하므로 색채조화의 중요함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카프 색상은 의복의 색상과 배색이 되어도 좋고, 강한 보색을 사용하여도 무난하나 강한 보색을 사용할 경우 스카프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이현숙, 이정숙, p. 52).

본 장에서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연출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총 496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작품의 선정은 패션관련 전공자 3인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스카프의 연출유형은 박순천과 김은실(2005), 정희경과 김정혜(2002)의 선행연구에 사용된 연출유형을 참고로 머리, 목, 어깨, 가슴, 허리 등 신체 각 부

위 및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두꺼운 모직이나 니트 조직의 머플러는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으며 각 부위별 연출유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의 연출유형

1) 머리장식

스카프 연출에 있어 목장식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머리에 장식하는 헤드 스카프는 여성들의 머리장식에 있어 가장 단순하고 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머리장식으로 연출하는 방법은 스카프를 밴드로 접어 머리띠 형식으로 연출하거나, <그림 1>과 같이 느슨하게 묶은 머리에 매어 흘러내리게 하는 스타일, <그림 2>와 같이 에스닉 이미지를 표현하는 터번 스타일, <그림 3>과 같이 두건처럼 머리를 감싸 턱밑에서 리본으로 묶거나 머리 뒤쪽에서 묶는 스타일, <그림 4>와 같이 머리 전체를 감싸 목까지 두르는 스타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S/S에 크리스티앙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는 컬러풀한 스카프를 머리에 터번처럼 말아 올려 브로치까지 연출하여 <그림 5>와 같이 독특한 스타일링으로 표현하였고,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는 깔끔한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에 그래픽 패턴의 실크 스카프를 연출하였으며, 에르메스는 스카프를 이용하여 독특한 시농 스타일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스카프는 목에만 둘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스러우면서도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헤어 액세서리로 표현되었다.

2) 목장식

스카프의 연출방법 중 58.9%로 가장 일반적이고 비중 있



<그림 11>
Hermes,
2002F/W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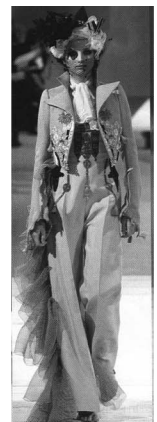
<그림 12>
Rick owens
2008S/S
(www.style.com)



<그림 13>
Chanel,
2005S/S
(www.style.com)



<그림 14>
D&G,
2009S/S
(www.firstview.com)



<그림 15>
Christian Lacroix,
2002S/S
(www.style.com)



〈그림 16〉
Cividini,
2005S/S
(Vogue, 2004.12)



〈그림 17〉
John Galiano,
2008S/S
(www.style.com)



〈그림 18〉
Giorgio Armani,
2002F/W
(www.style.com)



〈그림 19〉
Josep Font,
2008F/W
(www.style.com)



〈그림 20〉
Adeline Andre,
2005S/S
(www.style.com)



〈그림 21〉
Hussein Chalayan,
2002F/W
(Vogue, 2002. 5)



〈그림 22〉
Isabel Marant,
2008S/S
(Gap press, v. 79)



〈그림 23〉
Emilio Pucci,
2006S/S
(www.firstview.com)



〈그림 24〉
Hermes,
2001S/S
(Heremes 카탈로그, 2001)



〈그림 25〉
Hermes,
2002S/S
(www.style.com)

는 빈도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다양한 매듭을 이용하고 스카프의 크기, 종류, 소재 등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6〉은 단순히 목에 걸쳐 놓은 스타일로 짧은 길이의 스카프는 바둑판무늬와 술 장식으로 모던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7〉은 바닥까지 끌리는 맥시 스카프를 목에 한번 두른 스타일로 단순한 연출이지만 스카프의 긴 길이로 인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브닝드레스의 우아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시킨다. 〈그림 8〉은 블라우스와 동일한 프린트물의 스카프를 느슨하게 묶어 흘러내리도록 연출하여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그림 9〉는 얇은 소재의 맥시 스카프를 목에 여러 번 둘러 볼륨감을 강조한 것이다. 또 〈그림 10〉과 같이 베레모와 함께 연출된 화려한 프린트물의 스카프를 띠처럼 접어서 목에 두른 후 앞 중앙에서

매듭을 묶어 보이시한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그림 11〉과 같이 삼각형으로 접어 자연스럽게 목에 두르고 뒷목에서 묶는 카우보이 스타일처럼 연출하기도 하였는데 니트 스웨터와 함께 연출된 스카프는 가죽소재로 동일 소재의 장갑과 함께 통일된 조화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조화감은 〈그림 12〉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스트라이프를 이용하여 움직임적이고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의상과 함께 목에 여러 번 감아 연출된 스카프 역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스카프를 묶는 다양한 매듭 방법 중 〈그림 13〉과 같이 앞쪽에서 리본형으로 묶거나, 〈그림 14〉와 같이 한번 둘러 맨 스카프 위에 같은 스카프 소재로 카멜리아 꽃모양으로 말아 장식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장식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과거 남성의 전유물이던

크라바트나 넥타이를 응용한 스카프의 연출도 나타나는데 <그림 15>는 레이스 소재를 이용하여 크라바트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림 16>은 넥타이의 고정된 이미지 대신 넥타이를 목에 여러 번 감은 후 브로치로 고정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히 목에 걸쳐 두거나, 한번 둘러 묶기, 리본 형으로 묶기, 크라바트 형식, 삼각형으로 접어 묶거나 둘러 매듭짓기, 맥시 스타일의 스카프를 여러 번 둘러 늘어뜨리고 묶는 스타일, 넥타이를 활용한 스카프 연출 및 늘어뜨리기 등 수많은 연출법으로 표현되어 가장 다채로운 연출법을 나타냈다.

3) 어깨장식

어깨에 걸치는 연출법은 목장식과 머리장식에 이어 7.3%의 빈도로 나타났으나 단순히 어깨를 감싸는 스타일에서부터 거대한 솔을 이용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17>은 드레스와 같은 망사 소재를 이용하여 양 어깨를 감싸 리본매듭으로 처리한 것으로 의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림 18> 역시 드레스와 같은 소재를 이용한 맥시스카프로 긴 솔 장식은 울동감과 함께 화려한 장식적인 요소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유형들은 이브닝드레스나 여성스러운 원피스 등에 많이 연출되어 우아한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그림 19>는 삼각형으로 접은 커다란 솔 형태로 화려한 자수와 솔 장식으로 머리에서부터 양어깨를 감싸는 케이프 형식으로 연출되어 마치 스페인 민속의상인 맨틸라를 연상시킨다. 이와 같이 스카프를 어깨에 장식하는 방법은 솔 형태의 스카프로 어깨에 걸쳐 늘어뜨림으로써 우아하고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거나, 양 어깨를 감싸 묶기 또는 한쪽 어깨만을 감싸 묶어 늘어뜨리는 스타일, 그리고 커다란 사이즈의 스카프

를 이용하여 케이프처럼 연출하는 스타일 등으로 나타났다.

4) 허리장식

스카프를 이용한 허리장식 연출법은 <그림 20>과 같이 띠 형식으로 하여 바지나 원피스, 스커트, 코트에 벨트 대신 사용하거나 혹은 벨트와 함께 이중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그림 21>과 같이 스카프로 허리와 힘을 감싸듯 묶어 랩 스타일로 연출하는 방법 등이 나타났다. 또 <그림 22>와 같이 넓은 오비형태로 둘러 매고 앞에서 매듭지어 장식한 경우도 나타났다는데, 특히 무늬가 없는 단색의상의 경우 화려한 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스카프를 벨트장식으로 연출함으로써 의상의 포인트로 활용하였다.

5) 가슴장식

스카프로 가슴부분을 연출하는 유형은 <그림 23>과 같이 스카프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그림 24>와 같이 스카프를 대각선 방향으로 반 접어 뒷목과 허리에서 매듭지어 고정시킨 경우, 그리고 <그림 25>와 같이 목에서부터 가슴부분을 감싸듯 연출하여 상의인 톱으로 활용하거나 재킷 안의 이너웨어로 연출되어 나타났다.

6) 기타

스카프는 목이나 허리, 가슴부분 외에도 스카프의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여러 형태로 변형되고 새로운 스타일로 연출되었는데, 작은 손수건 크기의 스카프들을 이용하여 손목 장식에 이용하거나, 모자 위에 두르고, 핸드백에 묶어 포인트가 되는 장식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인체 한 부분에만 활용되기보다는 <그림 26>과 같이 머리, 목, 가슴, 허리, 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복합적으로 연결된 스타일



<그림 26>
Lagerfeld
2004S/S
(www.style.com)



<그림 27>
Jean Paul Gaultier,
2008S/S
(www.firstview.com)



<그림 28>
Jean Paul Gaultier,
2000S/S
(www.firstview.com)



<그림 29>
Matthew Williamson,
2001F/W
(www.firstview.com)



<그림 30>
Cacharel,
2001F/W
(www.style.com)

로 연출되어 하나의 스카프는 목에 두르는 스카프와 재킷 안에 착용된 이너웨어, 그리고 허리에 두르는 벨트까지 복합적인 용도로 표현되었다. 또 하나의 패션스타일링에 <그림 27>과 같이 머리, 목, 허리 부분에 각기 다른 소재와 색상의 스카프를 연출하여 스카프의 혼함을 통한 독특한 스타일링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독립적인 액세서리로 연출된다기보다 스카프 본래의 형태에서 벗어나 <그림 28>과 같이 목에서 돌려 매 묶고 어깨, 소매까지 연결되어 변형된 비데칭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림 29>와 같이 목에 돌려 맨 스카프는 상의인 탑으로 연결되어 부드러운 드레이프를 형성하며 입체적인 조형미까지 나타내는 등 의상과 연결된 형태로 일체된 개념에서의 스타일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그림 30>과 같이 눈속임 기법을 이용하여 마치 스카프를 어깨나 허리에 두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는 등 스카프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 자유롭게 개성 있는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2.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연출의 특성

앞에서 고찰한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연출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스카프는 다양한 연출방법을 통해 독특한 개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연출의 다양성을 통한 패션성이다. 우리들 모두 패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현대사회 생활전반에 패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만드는 것, 행위, 동작'을 의미하는 라틴어 'Factio'에서 유래한 패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의상과 장신구뿐만 아니라 머리스타일, 화장 등 인간 신체 전반에 행해지는 모든 장식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조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토털 패션으로서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은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패션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다양한 접촉과 자극에 의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에 있어 색상이나 소재, 아이템, 액세서리 등을 통한 개성 있는 연출 감각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스카프와 같은 액세서리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패션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서 의복과 함께 착용자의 이미지조화를 이루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다.

현대패션에 있어 의상과 함께 연출된 스카프는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목을 감쌀 수 있는 보온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패션을 마무리 짓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하였다. 특별한 봉제나 구성방법 없이도 접는 방법이나 매듭지어지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둘러매는 형식에 따라 의상과 조화를 이루거나 부조화 속의 조화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출에는 정해진 사이즈나 형식 대신 다양한 크기와 색상, 모티브 등으로 나타나는 스카프의 형태로 인해 보다 더 자유롭게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소재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크나 면, 울, 니트, 레이스뿐만 아니라 가죽, 망사, 양쪽 면이 서로 다른 이중소재 등이 자유롭게 연출되고 있으며, 색상이나 모티브 역시 무지의 스카프에서부터 꽃무늬, 기하학적무늬, 추상무늬 등 다양한 모티브와 색상으로 단순한 의상에 포인트가 되거나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패션스타일링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즉 단순한 사각형의 형태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소재나 문양, 다양한 크기 등 스카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식적인 요소만으로도 단순한 의상에 감각적인 패션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특히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착용자 스스로 매듭방식이나 접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각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 스카프의 개수도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스카프를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하나의 의상에 머리, 목, 가슴, 허리 등 서로 다른 스카프를 동시에 사용하여 복합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스카프를 착용하는 신체부위가 머리, 목, 어깨, 가슴, 허리, 몸 전체에 이르기까지 신체 각 부위에 이용되어 하나의 패션소품이면서 동시에 의상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나타남으로써 보다 독창적이면서도 개성있는 패션 이미지 연출을 나타냈다.

둘째, 고정관념의 탈피라는 특성을 나타냈다. 포스트모던 문화를 표방하는 현대패션의 경향이 다양한 개성표출을 추구하는 각 개인을 상대로 하여 더 이상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패션의 장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현대패션이 기존의 것들에서 이미 한계를 보이고 시대를 지배하는 양식적 특징이 하나가 아닌 다양한 양식과 기법의 혼용 및 실험성의 추구로 새로움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고, 특히 패션에서의 자기중심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리즘(Individualism)과 토털 코디네이션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김선영, 2008), 액세서리는 자신의 개성표현의 한 수단으로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개성적인 패션이미지 연출에 용이하고 또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스카프의 연출요령은 키가 큰 사람은 스카프 길이를 길게, 키가 작은 사람은 길이를 짧게 하고, 두꺼운 의복은 스카프 소재도 두꺼운 것을 선택하고 드레시한 의복에는 얇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오늘날 패션의 경향이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양한 디자인과 연출로 표현됨에 따라 스카프와 같은 패션소품의 연출 역시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연출방법들이 나타났다.

바닥까지 끌리는 긴 스카프나 몸 전체를 감싸는 듯한 거대한 스카프로 전체적인 비율을 무시한 듯한 연출에서부터 눈속임을 통한 스카프의 연출, 단순한 액세서리의 개념이 아

닌 변형된 스카프의 형태로 의복구성단계에서부터 옷과 연결되어 의복의 한 형태로 전환되거나 또 일체된 개념으로서의 스카프,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목에 두르는 스카프 본연의 용도뿐만 아니라 헤어 액세서리, 이너웨어, 허리벨트 등 복합적인 용도로까지 연출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해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패션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연출방식, 또는 비정형적인 형태변화를 통한 탈 구성적인 연출 등은 스카프가 단순한 패션소품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의복구성의 한 요소로 전환되어 인체 위에서 재창조됨으로써 절대적인 개념 대신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 착용자의 자유로운 감성을 반영하는 개방적인 시도라 하겠다.

즉 현대패션에서 전개되는 의외성의 추구나 정형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는 하나의 자극물로서의 표현은 의상뿐만 아니라 스카프의 연출과 같은 패션소품의 연출에까지 작용하여 다양한 외적특성과 스카프자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한다. 이와 같이 스카프 본래의 용도를 넘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표현되는 스카프의 새롭고 실험적이며 자유로운 감성에 의한 연출이미지들은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스카프를 연출하고 있는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고 또 스카프가 갖는 상징적 의미의 관념을 허물게 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디자인 전개로 이어지게 한다.

IV. 결론

스카프는 여성의 부드럽고 세련된 개성연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패션소품이고 계절에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근래에는 남성패션에 있어서도 세련된 개성연출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의 연출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개성적인 패션연출과 함께 스카프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의 연출유형은 첫째, 스카프를 밴드로 접어 머리띠 형식으로 연출하거나, 머리에 묶는 스타일, 터번스타일, 두건스타일 등으로 나타나 화려한 헤어 액세서리로 표현되었다. 둘째, 목에 장식하는 연출유형으로 단순히 목에 걸쳐 두거나 두르기, 한번 둘러 묶기, 리본형으로 묶기, 삼각형으로 접어 묶거나 둘러 매듭짓기, 맥시 스타일의 스카프를 여러 번 둘러 늘어뜨리고 묶는 스타일, 크라바트나 넥타이를 활용한 스카프 연출 및 늘어뜨리기 등 수많은 연출법으로 표현되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다양한 연출형태를 나타냈다. 셋째, 숄 형태의 스카프로 어깨에 걸쳐 늘어뜨림으로써 우아하고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거나, 양 어깨를 감

싸 묶기 또는 한쪽 어깨만을 감싸 묶어 늘어뜨리는 스타일, 그리고 커다란 사이즈의 스카프를 이용하여 케이프처럼 연출하는 스타일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띠 형식으로 하여 바지나 원피스, 스커트, 코트에 벨트 대신 사용하거나 혹은 벨트와 함께 이중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허리와 hips를 감싸듯 묶어 랩 스타일로 허리부분에 장식에 이용되었다. 다섯째, 스카프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스카프를 대각선 방향으로 반 접어 뒷목과 허리에서 매듭지어 고정시키고 또는 긴 스카프를 이용하여 목에서부터 가슴부분을 감싸듯 연출하여 상의인 톱으로 연출되었다. 여섯째, 모자나 핸드백에 묶어 연출되거나, 하나의 긴 스카프로 신체 각 부분에 연결된 스타일로 연출되었고, 또 하나의 패션스타일링에 각기 다른 소재와 색상의 스카프를 연출하여 스카프의 혼함을 통한 독특한 스타일링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스카프 본래의 형태에서 벗어나 의상과 연결된 형태로 일체된 개념에서의 스타일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눈속임 기법을 이용하여 마치 스카프를 어깨나 허리에 두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스카프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 자유롭고 개성 있는 스타일로 연출되었다.

이러한 스카프 연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스카프는 독특한 개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연출의 다양성을 통한 패션성이다. 스카프는 특별한 봉제나 구성방법 없이도 접는 방법이나 매듭지어지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둘러매는 형식에 따라 의상과 조화를 이루거나 부조화 속의 조화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출에는 정해진 사이즈나 형식 대신 다양한 크기와 색상, 모티브 등으로 나타나는 스카프의 형태로 인해 보다 더 자유로운 스타일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스카프를 착용하는 신체부위가 머리, 목, 어깨, 가슴, 허리, 몸 전체에 이르기까지 신체 각 부위에 이용되어 다양한 패션이미지연출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보온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패션을 마무리 짓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하였다. 둘째, 고정관념의 탈피라는 특성을 나타냈다. 눈속임을 통한 스카프의 연출, 단순한 액세서리의 개념이 아닌 변형된 스카프의 형태로 의복구성단계에서부터 옷과 연결되어 의복의 한 형태로 전환되거나 또 일체된 개념으로서의 스카프,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목에 두르는 스카프 본연의 용도뿐만 아니라 헤어 액세서리, 이너웨어, 허리벨트 등 복합적인 용도로까지 연출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고정관념을 탈피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패션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스카프는 보온이라는 실용성과 함께 다양한 크기와 소재, 문양에 의한 화려한 장식성으로 의상과의 코디네이션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고정관념을 탈피한 신선한 발

상으로 신체 여러 부분에 다양하게 연출되어 가변적인 조형미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출유형과 특성들은 패션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타인과 다른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취향과 문화, 그리고 개성을 나타내고자하는 창조적 시각이며 다양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 시대의 미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패션디자인에 있어 스카프를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 전개나 연출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스카프뿐만 아니라 기타 액세서리 디자인이나 연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보다 새로운 패션의 이미지창출이 전개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물자료가 아닌 사진자료에 근거하여 다양한 스카프의 소재나 색상, 문양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 한계점으로 밝힌다.

■ 참고문헌

- 김경주(2002). 꽃의 형상화에 의한 스카프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영(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외적형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6(2), 31-44.
- 김세원(2000). 신라토우를 활용한 스카프디자인 연구. **한국공예논총**, 3(2), 49-63.
- 김혜진(2008). 색채감성표현에 의한 스카프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라사라교육개발원(1991). **복식사전**. 서울: 도서출판 라사라.
- 박순천, 김은실(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연출법 및 착용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4), 622-631.
- 오희선(2000).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패션코디**. 서울: 경춘사.
- 윤다래(2004). 윌리엄 모리스 작품을 응용한 현대 스카프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옥, 최영주, 최경주(1987).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 이현숙, 이정숙(2002). **패션과 액세서리**. 서울: 신정.
- 임순, 김효숙, 강인애(2001). **나도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서울: 예학사.
- 정홍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정희경, 김정혜(2002). **스카프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복식**, 52(5), 47-60.
- 차민정(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패션큰사전위원회(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 Francois, B.(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 HERMES(2001~2006). *HERMES CARRE*. Paris: HERMES.

접 수 일 : 2010년 3월 8일

심사시작일 : 2010년 4월 1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4일